

60%가 기출문제… 정답보단 풀이과정 꼼꼼히 확인을

한 달 여 남은 수능 어떻게 공부하나

목표 대학 반영비율 확인
영역별 학습전략 세워야

지원한 수시 요구조건 맞는
수능최저학력 기준 맞춰야

내달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원가에서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간 효율적인 수능 대비 전략이 요구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신입생의 23.8%(8만2972명)를 대부분 수능 100% 전형으로 선별한다.

◆대학마다 다른 영역별 반영비율 확인

수능은 크게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국어와 수학, 절대평가인 영어, 탐구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학들은 성적을 산출할 때 이 영역들을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한다. 절대평가가 된 영어는 대학별로 실질 반영비율의 차이도 크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을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모집단위의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지원자에게 선호도가 비슷하지만, 인문계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비교해보면, 한양대는 30%로 높은 편이지만, 서강대는



내달 15일 치러지는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수험생이 서울 중구 종로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8%, 성균관대는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인문계 수학의 경우 서강대는 46.9%, 성균관대는 40%를 반영하지만 한양대는 이보다 낮은 30%다. 따라서 서강대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탐구 영역보다는 수학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한양대를 지원한다면 수학만큼 탐구영역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서울지역 대학들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보면, 국어영역은 성균관대 인문계열(40%)이 가장 높고, 고려대 인문계열(35.7%), 서강대(34.4%), 서울대·연세대(33.3%), 한양대 인문계열(30%) 등의 순, 수학영역의 경우는 서강대(45.9%)가 가장 높고, 이어 서울대·성균관대

(40%), 고려대 자연계열(37.5%), 고려대 인문계열(35.7%), 한양대 자연계열(35%) 등의 순으로 높다. 탐구영역은 한양대 자연계열·성균관대 자연계열(35%), 연세대 자연계열(33.3%), 고려대 자연계열(31.3%), 한양대 인문계열(30%) 순으로 많이 반영한다.

절대평가 영어영역은 이화여대(25%)·연세대인문계열(16.7%)·연세대자연계열(11.1%), 한양대(10%) 등이 비율로 반영해 영향력이 큰 반면, 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은 가점이나 감점을 적용 상대적인 영향력을 적다.

◆학원가 “풀어본 문제 60% 나와”

대입 학원가에서는 실제 수능에서 본인이 풀어본 문제가 60% 정도, 새로운 문

제가 40% 출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BS-수능 강의·교재 70% 연계 출제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된다. 시험을 치른 뒤에야 알았던 문제를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정답의 근거와 풀이과정을 확인하는 게 좋다.

틀렸던 문제의 경우는 문제 난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문제 풀이 시간을 정한 후 풀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새로운 문제로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이해 보는 것이 좋다.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간관리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오답 정리를 해 이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수능 시험 치르듯 공부

수능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긴 시간 동안 치러진다. 학교 수업을 듣는 시간과 비슷하지만, 실제 수능 시험에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듯 문제풀이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좋다. 시험 중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다. 때문에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보다는 밤 시간대에는 잠을 자고 낮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수시 수능최저에 맞춰야

수능 시험 성적은 정시모집뿐 아니라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도 적용되므로,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수시모집에서 교과와 비교과, 면접, 논술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하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만족할 경우 실질경쟁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시모집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수시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평가하므로 대학별 고사에서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를 고려해 불합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수시와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수능 성적 확보가 관건인 만큼, 대학별 고사 준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 가능 시간에는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올해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올해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평가원 모의평가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시험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도 있다. 커넥츠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 유흥룡 소장은 “모의평가가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과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준생 된 중장년’… 40대 구직자 증가세

사람인, 20~50대 빅데이터 분석

3년째 취업시장 진출 늘어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하는 중장년층이 3년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와 40~50대 실직자 증가, 경력직 중심 채용 시장으로의 개편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자체 연령대별 온라인 입사지원 비율의 내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대 취업시장 진출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대~50대 데이터 분석 결과, 2018년 상반기 이 사이트를 활용한 40대의 온라인 입사지원건수 비중은 전체의 14.9%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p 늘어난 수치다. 50대의 온라인 입사지원 비중도

2016년 상반기 4.4%에서 2017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40대의 온라인 입사지원건수도 2016년부터 동기 대비 꾸준히 늘어왔다. 2016년 상반기 대비 2017년 상반기에는 18.4% 증가(34만 2334건 ↑)했고,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도 3.5%(7만 6998건 ↑)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대는 2016년 상반기에서 2017년 동기 1.3% 늘었다가(8만 3655건 ↑), 2018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28만 3423건 ↓)했다. 경력으로의 이직이 가장 활발한 30대의 온라인 입사지원건수는 2017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40만 6307건 ↓)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8년 상반기 0.3% 증가(1만 5780건 ↑)했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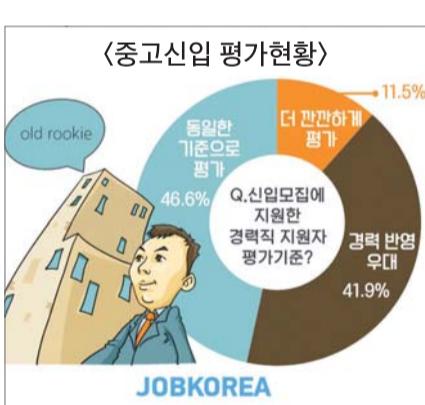
잡코리아, 기업 면접관 304명 설문 면접관 60% “경력, 마냥 우대 안해”

직장생활 경력이 있지만 다른 회사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하는 이른바 ‘중고신입’이 올 상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한 기업 10곳 중 8곳에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잡코리아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304개사 면접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77%의 기업이 ‘신입직원 모집에 경력직 지원자가 지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입직 모집에 지원한 경력직 지원자들의 경력 연차를 보면 ▲1년~2년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19.7%) ▲2년~3년 미만(18.8%) ▲6개월 미만(11.8%) ▲3년 이상(10.9%) 순이었다.

이들 중고신입 지원자에 대한 입사평



가에 대해서는 ▲‘다른 신입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기업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신입보다 더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기업도 11.5%나 됐다.

반면, ▲‘경력을 반영해 우대한다’는 기업은 41.9%로 10개사 중 6개사 정도의 기업들이 신입공채에 있어 경력직 지원자들을 별도로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면접관들은 향후 중고신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6.5%가 ▲앞으로 중고신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와 비슷할 것(12.8%)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면 기업은 0.7%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스펙이 좋아도 면접 시 반드시 탈락시키는 지원자 유형이 있는지’ 물은 결과 87.5%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자세, 말투 등 직장생활의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응답률 5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우(42.5%)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25.9%)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23.7%)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다른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22.9%)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21.4%) 등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농심그룹 하반기 신입·경력 100여 명 공채

22일까지 서류접수… 중복지원 가능

농심그룹이 2018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류접수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농심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심은 ▲경영관리 ▲마케팅 ▲해외영업 ▲국내영업 ▲생산품질관리 ▲전기기기 ▲농심그룹식품연구소(R&D) 등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출업자다. 채용인원은 총 100여명이다.

이번 채용은 농심 외 태경농산, NDS, 농심엔지니어링(경력직) 등 농심그룹 주요 그룹사도 동시에 진행되며, 그룹사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31일 오후에 발표 예정이며, 이후 필기전형(적성검사, 인성검사, 논술시험) → 실무진 면접 → 경영진 면접 → 채용검진을 거쳐 2019년 1월 중 최종 입사하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고 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이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백인웅 기자

환수 못한 사학연금 부정수급액 24억 원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 분석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 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 3500만 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 1200만 원(49건)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 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컨디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수시 수능최저에 맞춰야 수능 시험 성적은 정시모집뿐 아니라 수시모집의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도 적용되므로,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수시모집에서 교과와 비교과, 면접, 논술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하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만족할 경우 실질경쟁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시모집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수시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평가하므로 대학별 고사에서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를 고려해 불합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수시와 정시까지 생각한다면 수능 성적 확보가 관건인 만큼, 대학별 고사 준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 가능 시간에는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올해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올해 수능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평가원 모의평가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시험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도 있다. 커넥츠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 유흥룡 소장은 “모의평가가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과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